삼성 · 애플, 올해 유난히 '다사다난'

삼성 '갤노트7 단종' VS 애플 '혁신 부족' 에 비난받아… 내년 혁신적 신제품 없으면 어려울 전망

전자업계 글로벌 양대산맥인 삼성전자와 애플은 올해 유난히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다.

두 회사 모두 '혁신 카드'를 내놨지만 삼성은 '갤럭시노트7' 발화 문제로 단종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고, 애플은 '아이폰7'에서 이어폰 단자를 없앤 것이 당초 기대와 달리 큰 반향도 없었는데다 매출을 올리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더군다나 내년은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사상 첫 역성장세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표정은 더욱 어두울 수밖에 없다.

삼성의 경우 지난 8월2일 미국 뉴욕에서 갤노트7을 공개했을 당시에만 해도 갤노트7은 시장의 호평을 받으며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렀다.

지문 인식보다 한 발 더 나간 '홍채인식'을 도입했고, 고속 무선 충전, 방수·방진 기능 등으로 소비자의 관심을 집중 받았다.

국내 시장에서 13일 동안의 예약 판매량이 40만대였고, 발화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전까지 글로벌 시장에서는 306만대가 팔려나갔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에서 비슷한 발화사고가 일어나면서 8월31일 공급을 전격 중단했다. 삼성은 이틀 뒤인 9월2일 10개국에서 판매된 갤노트7 250만대를 전량 회수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교환해 준 새로운 제품에서도 발화사고가 보고되기 시작하면서 파문은 일파만파로 확산됐다.

결국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와 연방항공청(FAA)은 갤노트7 사용 중지 권고를 내렸고, 각국 정부와 항공사들이 기내에서 갤노트7을 소지하지 못하도록 규제했다.

삼성 역시 생산을 중단한 지 하루가 지나고 단종이라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장애물 사이로 이리저리 2016 용인 드론영상제가 열린 19일 오후 경기 용인 실내체육관에서 참가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드론으로 경주를 하고 있다.

애플 역시 힘든 한 해를 겪고 있다. 지난 9월16일 아이폰7을 출시한 애플은 제품 하단에 3.5㎜ 헤드폰잭을 없애는 대신 무선으로 이어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유선 이어폰을 사용하려면 기존의 라이트닝 커넥터(충전단자)와 연결해야 한다. 일반 이어폰과는 더 이상 호환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일부에서 혁신이라는 호평도 있었지만 '꼼수'라는 지적도 많았다. 애플이 내놓은 블루투스 이어폰 에어팟은 159달러(약 18만9000원)에 책정됐다.

소비자 입장에선 가격도 부담이지만 쉽게 잃어버릴 수 있는 형태라 불만들이 쏟아져 나왔다.

아울러 애플 역시 최근 발화 논란에 휩싸였다. 중국에서 아이폰6 시리즈의 발화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것.

한편 시장조사기관 스트래터지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올해 스마트폰 글로벌 시장점유율 전망치를 조사한 결과 삼성전자는 20.7%로 1위에 올랐다.

북미 시장에서 1위 자리를 지키며 자존심을 세운 애플은 14.5%로 2위를 차지했다. 삼성과 애플 모두 지난해와 똑같은 자리에 머물렀지만 상황과 분위기는 1년 전과는 확연히 다르다.

시장조사업체 IDC는 올해 전 글로벌 스마트폰 출고대수는 사상 최대인 14억5000만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전년 대비 1% 늘어난 수치에 불과하다. 스마트폰 시장의 연간 성장률은 지난해 10.4%였으며, 2012년에는 무려 47%에 달했다.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성장세가 한풀 꺾일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삼성과 애플이 혁신적인 신제품으로 흥행을 보증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지 못한다면 큰 난관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뉴시스

"스마트폰으로 위조지폐 가려낸다"

국과수-한은 '알기 쉬운 위조지폐 확인법' 앱 공동개발

19일부터 각 개인이 보유한 스마트폰을 활용해 위조지폐를 손쉽게 감별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알기 쉬운 위조지폐 확인법' 앱 개발을 완료, 19일 오전 10시 구글 플레이스토어과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알기 쉬운 위조지폐 확인법' 앱은 이용자가 1원하는 지폐를 선택한 뒤 안내에 따라 위조 여부를 감별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앱은 비추어 보기, 기울여 보기, 만져보기 등 위조지폐 식별요령을 안내한다. 또 위조지폐 유통 시 처벌 조항, 발견 시 행동요령도 알려준다.

비추어보기는 지폐를 빛에 비추는 방식으로 위조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한다. 지폐 좌측에 위치한 숨은 그림, 앞판과 뒤판의 무늬가 합쳐져 정확한 태극무늬를 완성하는 앞뒷면맞춤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기울여보기는 지폐의 기울임에 따라 나타나는 위조 여부 확인방법을 알려준다. 실제 지폐를 기울이는 것처럼 스마트폰을 기울여 보면 보는 각도에서 따라 달리 나타나는 홀로그램, 숨겨진 숫자가 드러나는 요판잠상 등에 대한 안내가 나온다.

만져보기에서는 지폐 도안 중 볼록하게 인쇄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 앱 상에서 해당 부분 터치시 진동을 통해 위치를 알려준다.

/뉴시스

345KV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공사완료

내일 전력공급 시작

수년째 주민들과 갈등을 빚어온 345KV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공사가 8년만에 마무리 돼 한전에서 오는 21일 전력공급을 시작한다.

345KV 군산-새만금 송전선로는 새만금 산업단지 전력공급을 위해 군산변전소(임피면)~새만금변전소(미성동) 구간(30.6㎞)에 345KV급 송전탑 88기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2008년 공사를 시작해 임피면, 대야면, 회현면 14.3㎞ 구간에 송전탑 42기를 설치했으나, 회현면, 옥구읍, 미성동 구간 송전탑 46기는 2012년부터 공사 여부를 놓고 지역민과 갈등을 빚는 등 공사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왔다.

이번 송전선로 건설이 완공되면서 그동안 공사가 지연된 동백대교 공사도 재개될 것으로 보여 충남 서천과 전북 군산 주민들의 불만 해소와 함께 상생의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문정곤 기자

연금저축 중도해지, 16.5% 기타소득세 부담

금감원, 절세 · 유의사항 안내… "납입 중지 · 유예 · 중도인출 · 담보대출 활용을"

경제사정으로 연금저축 납입이 곤란한 경우에는 납입중지(신탁·펀드) 또는 납입유예(보험)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연금저축은 국민연금에 더한 노후대비 수단으로 세금까지 깎아주고 있지만 중도에 해지하면 연말정산 세액공제율보다 높거나 같은 16.5%(2001년 이후)의 기타소득세를 물어내야 한다.

때문에 일시적으로 연금저축 납입이 곤란하다면 연금저축을 해지하기보다는 납입중지 또는 납입유예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금저축신탁·펀드는 자유납이므로 납입을 중단했다가 경제상황이 좋아지게 되면 언제든지 납입을 재개할 수 있다.

2014년 4월 이후 체결한 연금저축보험은 1회당 최대 12개월, 최대 3회까지 납입유예가 가능하다. 만약 납입유예하지 않고 보험료(월납)를 2회 이상 납입하지 않으면 실효되고 이후 일정기간(2년) 내에 계약을 부활시키지 않으면 해지된다.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액은 세금 없이 중도인출도 가능하다.

2001년 이후 판매된 연금저축상품은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낼 수 있는데, 세제혜택은 4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가령 연간 1000만원을 냈다면 세금 혜택을 받은 400만원을 제외한 600만원은 세금부과 없이 인출할 수 있는 셈이다.

가입자 사망, 해외이주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3.3~5.5%의 연금소득세를 내면 연금저축을 해지하지 않고도 납입금액의 일부를 중도인출하거나 전액 인출(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내 증빙서류를 갖추어 가입한 금융회사에 신청해야 한다.

연금저축 담보대출제도도 있다.

연금저축상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으로 은행과 증권사는 연 금리 3%대, 보험은 4% 안팎으로 돈을 빌릴 수 있다. /뉴시스

은행 대손준비금,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

보통주 자본비율 0.9%p · 총자본비율 0.6%p 상승 전망

오는 20일부터 은행들의 대손준비금이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된다.

이 경우 국내은행들의 자본부담이 완화되면서 외국은행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사항을 발표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자본비율 산정시 이익잉여금 중 대손준비금은 보통주 자본 인정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는 이익잉여금을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하는 국제기준과 비교하면 보통주 자본 인정 범위가 협소하다는 단점이 있다.

금융위는 대손준비금이 축적이 국내 은행들의 수익성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자기자본비율 산정시 보통주 자본에서 대손준비금을 공제하지 않도록 했다.

규제가 완화되면 국내은행들의 보통주 자본비율은 0.9% 포인트, 총 자본비율은 0.6%포인트씩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이밖에 위안화 청산은행에 대한 동일인·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규제 특례를 신설하고,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외국은행의 국내지점 설립 관련 조문을 명확화했다. /뉴시스